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4 Number 09 **09** 2016



진화론자들의 전략

과학교육과 교과서 문제에 대해 진화론자들의 주된 전략은 “진화론(evolutionism; Darwinism)은 과학이고 창조론(Creationism)은 종교이다. 과학교육이나 과학교과서에 종교문제를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과학과 종교의 분리” 주장은 그 실제 내용을 모르는 일반대중들에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만일 위에서 말하는 과학이 “검증가능한 실증과학 (operational science, testable science)”을 의미한다면 진화론자들의 그러한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진다. 실증과학의 3요소는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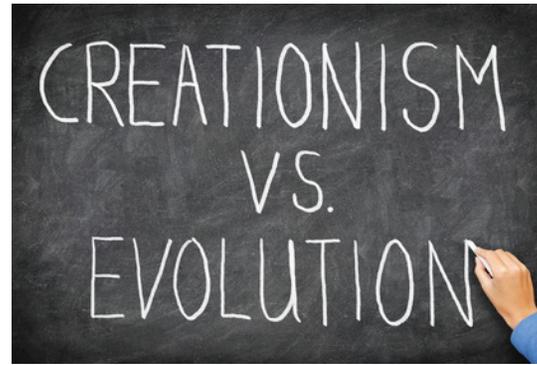
가능observable, 실험가능 testable, 재현가능reproducible”인데 진화와 창조 모두 그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화와 창조는 현 자연계에서 관찰되어지지도 않고, 실험해 낼 수도 없으며, 재현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 실증과학에 속하지 않고 전제(presupposition)나 배경신념 (background belief), 또는 해석 (interpretation)에 속하는 세계관(worldview)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실제로 관찰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돌연변이(mutation)를 내세운다. 이러한 돌연변이가 오랜 세월 계속되면 새로운 종이 생긴다는 것이다. 돌연변이는 관찰/실험 가능하므로 실증과학이고 창조론자들도 똑같이 인정한다. 그런데 “그 돌연변이가 오랜 세월 누적되면 새로운

종이 생긴다”는 진화론은 화석기록이나 분자생물학적으로도 검증 불가능한 믿음과 세계관에 속하는 문제이다. 오히려 화석기록이나 분자생물학은 그것을 부인한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중간화석(transitional fossil)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돌연변이는 기존의 생명정보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상향식의 새로운 생명정보가 계속 생기면서 종의 범위를 넘어서는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조론도 믿음과 세계관에 속하지만 진화의 매커니즘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실증과학에 가깝다.

위와 같은 “과학과 진화를 동일시”하는 심각한 문제는 진화론자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크리스찬 진영에도 존재한다. 유신론적 진화론(theistic evolution), 간격이론(gap theory), 점진적 창조론(progressive creation), 구조가설등의 타협이론이 그것이다. 진화론자들은 또한 창조론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과학을 부정하는 반지성 맹신자” 운운한다. 실제로 창조론자들은 실증과학은 다 인정하고 해석과 세계관에 속하는 진화를 부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계속 대중들에게 그렇게 세뇌시킨다. 필자도 작년에 한국의 한 신학교에서 강연 했을 때 신학생들과 신학교수들에게 지속적으로 받은 질문이 “왜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을 부정하고 과학과 싸우는가?”였다. 그럴 때마다 “창조과학자들도 똑같이 실증과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신념인 진화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계속 답했지만 위와 같은 잘못된 개념과 인식이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진영 안에서도 얼마나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가를 새삼 보게 되었다.

신학생들과 신학교수들에게 지속적으로 받은 질문이 “왜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을 부정하고 과학과 싸우는가?”였다. 그럴 때마다 “창조과학자들도 똑같이 실증과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계속 답했지만 위와 같은 잘못된 개념과 인식이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진영 안에서도 얼마나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가를 새삼 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창조과학자들이 일반 대중에게 강조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진화론을 실증과학과 분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 점을 언급해 오긴 했지만 더 소리 있게 지속적으로 일반 대중을 그 방향으로 설득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자들에게 필요한 전략은 창조론을 과학 교과서에 집어 넣으려는 노력이 아니

라 “과학교육이나 과학교과서에서는 오직 실증과학만을 다루고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믿음과 세계관의 문제이므로 차라리 세계관(또는 종교나 철학)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한 때 미국의 ICR (Institute of Creation Research)도 처음에는 전자의 노력을 했었지만 나중에는 후자의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적이 있었다.

최근에 영국에서 흥미있는 재판결과가 보도 된 적이 있다. 영국의 무신론 인본주의자들이 종교교육과 시험에 인본주의-무신론적 진화론(다아위니즘)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송이었다. 그런데 니키 모건 교육부 장관은 지침서를 통해 “학교 종교교육에서 인본주의 무신론적 세계관 교육을 기독교와 같은 수준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미 과학 교과서를 점령한 진화론자들이 종교/철학/세계관 교육까지 접수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이러니할 하계도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에 종교와 세계관적 요소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된다.

진화론자들의 전략에 대응하는 창조론자들의 전략을 결론적으로 요약해 보면 “과학교과서에서는 검증된 실증과학만을 다루어야 한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실증과학의 범주 밖이며 오히려 종교/철학/세계관에서 다루는 것이 더 공평하다”이다. 즉, 창조론을 과학교과서에 끼워 넣는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실증과학이 아닌 진화론을 과학교과서에서 분리해 빼어내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러한 풀뿌리 운동(grass-root movement) 전개에 교회와 크리스찬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호에 계속: 창조/진화 논쟁 (debate)에서의 전략)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25)



김무현 박사
해양목공학



교과서와 기원문제 (12)

우주의 탄생 경위가 두 개일 수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알려준 출생과정 외에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거야' 하는 어떤 전제 하에 몇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그럴 듯한 출생 스토리를 만들어 내었다면 받아들일지? 예를 들어, 아기 때 찍어 놓은 사진들을 가지고 나름의 스토리를 만들어 부모가 말해 준 과정이 틀리다고 계속 우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녀를 출산한 병원에까지 가서 출생신고서를 떼어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도 자신의 연구 결과가 옳다고 말한다고 해보자. 불신이 극도로 크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래도 한 사람의 출생 경위가 두 개 일 수는 없다.

과학 교과서에서 빅뱅 모델이 제시하는 우주의 탄생 경위에 대해 그 폭발 직후의 순간인 $10^{-43} \sim 10^{-32}$ 초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다. 이 찰나라고 표현하기에도 극도로 짧은 시간에 우주의 반지름이 소립자의 크기에서 자몽 크기 정도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초기 우주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자 우주는 $10^{-43} \sim 10^{-32}$ 초 사이에 우주의 반지름이 약 10^{43} 배로 증가하였다. ... 또한 현재는 우주의 서로 다

른 반대편에서 관측되는 물질들도 초기 우주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주의 서로 다른 반대편에서 관측되는 물질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빅뱅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서 우리들은 우주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1]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빅뱅 이론의 처음부터 제시되었던 것이 아니다. 흔히 우주 배경 복사(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가 빅뱅의 증거라고 제시되고 있지만,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와 빅뱅이 제시하는 우주 탄생의 경위가 실제로는 불일치하여 빅뱅 스토리는 여러 번 수정되어야 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렇다. 우주배경복사는 우주 전체로부터 수신되는데, 매우 낮은 온도인 약 2.7K 즉, 영하 270°C정도의 에너지가 보내는 전파이다. 이 우주 전체로부터 들어오는 전파는 매우 균질한 분포를 가지고 있어서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의 차이가 십만 분의 1 정도 밖에 나지 않는다. 이는 빅뱅 이론이 처음에 예측했던 균질성보다 100배나 더 균질한 것이었다. 문제는 우주가 정말 폭발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폭발 초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버린 물질들은 그 이후 접촉하거나 에너지를 교환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서로 반대편의 물질들마저 늘 열적인 상호작용을 해 온 것처럼 너무나 균질한 온도분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빅뱅이 제시하듯 138억 광년의 거리가 정말 138억년의 우주의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주의 반대편 물질들과 한 번만 에너지를 교환하려해도 그 2배의 시간이 걸리기에 그 긴 우주의 나이도 무색하다. 즉, 우주의 상대편 공간에 있는 물질들이 빛의 속도라도 에너지를 교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는 극도로 균질하다. 이러한 관찰과 이론의 불일치 때문에 빅뱅론자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주가 동일한 비율로 팽창해왔다는 자신들의 전제에 대해 살짜 눈을 감아버리는 찰나의 순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것이 바로 1979년 앨런 구스(Allan Guth)가 제시한 인플레이션(급팽창)이란 개념이다. $10^{-43} \sim 10^{-32}$ 초 사이에 급팽창을 함으로써 작은 공간에서 충분히 상호작용했던 에너지가, 순식간에 퍼진 후 지금과 같은 팽창률로 복귀해 서서히 식어왔다는 것이다.

빅뱅론자들은 급팽창(인플레이션)의 도입으로 인해 어떻게 열적 상호작용이 없는 우주 반대편의 온도가 극도로 균질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설명을 위해 그들이 지어낸 우주 탄생 경위는 몇 가지 가설적 전제를 추가해야 했다. 먼저, 자연주의 과학자들이 과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동일과정설적 전제'를 스스로 $10^{-43} \sim 10^{-32}$ 초 사이 만큼 포기한 것이다. 이 시기만큼은 격변적 팽창이 존재했다는 전제로 바꾼 것이다. 둘째, 급팽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 수 조배의 팽창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무엇이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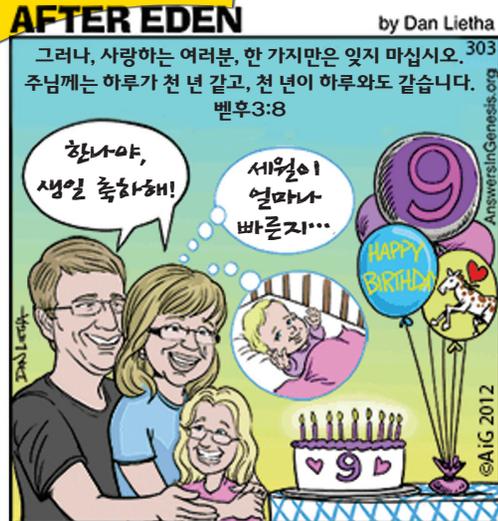
한 팽창을 일으켰는지 원인을 알 수 없다. 이것은 현대 우주론이 고수하는 자연주의 가정을 스스로 위배하고 초자연적 개념을 수용한 것이다. 셋째, 그 격변적 팽창을 단 10^{-43} ~ 10^{-32} 초에만 허락하고, 순식간에 팽창률을 느린 속도로 바꾼 물리적 과정이 무엇인지 메커니즘이 없다.

천동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이론은 많은 가설을 필요로 하며, 설명이 안되는 관찰이 나타날 때마다 또 다른 가설적 개념을 도입해서 이론을 수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왜 원인도 메커니즘도 없는 증가하는 가설적 개념을 계속 받아들일지라도 공립학교 교과서를 통해 강요당해야 하는가?

더 많은 가설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 시간 말이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출생 경위가 두 개 일 수는 없다. 진실된 부모가 자녀가 태어난 날과 과정을 축복된 마음으로 기억하며 말해주듯, 진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존재의 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주셨고 복을 주셨다. “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1)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복이다.

[1] 안태인 외 11인, 고등학교 과학, 금성출판사, p33, 2011

노회성 / 과학교사



한나의 부모에게 9년은 하루와 같았다.
아이의 나이를 바르게 쓸 것!

제 8기 ITCM 모집

창조사역 집중 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 8기 ITCM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8주간, 미국 엘에이(Los Angeles)에 소재한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 :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청장년으로,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문적으로 사역하기 원하는 자로서,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www.HisArk.com About Act)에 명시된 신앙고백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훈련 내용 : 성경-과학-사역 이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과학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창조과학탐사와 세미나 및 필드 트립에 참여합니다. 더불어 성경공부와 창조과학 도서 읽기, 프리젠테이션 및 토의 활동 등을 통해 성경적인 창조론의 중요성 및 실재를 습득하며, 진화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ITCM 지원 방법

1. 신앙고백 : www.HisArk.com About Act의 What We Believe에 명시된 6 항목에 동의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 1부
2. 대학 혹은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3. 본인 소개서 1부 (지원동기와 이력서 포함하는 자기 소개서)
4. 참고인 3명(연락처가 명시된 참고인 3명 중 1인의 추천서 포함)

위 4가지 지원서류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본인소개서** 양식은 문의를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이메일로 문의 및 접수해주시고, 서류 심사와 면담(원거리의 경우 전화통화) 후 8~10월 사이에 7~10명을 선발합니다.

보내실 곳 : 노회성 remaininthislove@gmail.com

ITCM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sArk.com) [훈련 프로그램]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창조과학탐사

일산산성교회

지난 7월 3-10일 일산산성교회(담임목사 유희숙)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이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일산산성교회는 2014년 창조과학탐사에 이어 창조과학 부흥집회를 열고 올해 또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임하였고 이 시대에 창조과학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 창조과학탐사를 미리 예약하는 열심도 보여 주셨습니다.

한동대학교 교수

지난 7월 14-20일 한동대학교 교수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장순홍 총장님을 비롯해서 39명의 교수 내외께서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하루하루 진행됨에 따라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시고, 이 진화론 시대에 한동대학교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화론으로 가득찬 시대에 가르치는 분들께서 먼저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추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유신론적 진화론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것도 공감하셨습니다.

이번 창탐에는 햇볼트리니티 이경숙 총장님 내외, 평양과기대 이병무 교수님 내외,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의 양의혁 교수님 내외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창조과학탐사 동안, 오는 10월 말에 이재만 선교사가 한

동대학교에서 사흘간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진화론 시대에 앞으로 한동대학교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귀한 학교로 우뚝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는 몇몇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산동산고등학교

지난 7월 21-24일 안산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의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가 네 번째입니다. 1학년으로 구성된 학생들과 선생님들



일산산성교회



한동대학교 교수



전주목원교회



안산동산고등학교



창조과학캠프

54명이 참석했습니다. 동산고등학교는 매년 7월 미국 동부 대학교 견학과 함께 창조과학탐사를 참여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진화론의 문제점을 알고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내내 질문이 쏟아졌으며, 돌아오는 길에 함께 나는 간증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성경을 읽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주목원교회

지난 7월 26-29일 전주 목원교회에서 창조과학탐사를 참석하셨습니다. 어른들부터 고등학생까지 골고루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진화론에 얼마나 많이 젖었는지 확인하며, 더 나아가 성경의 증거들을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날 간증 시간에는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창조과학 캠프

지난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ITCM 수료생과 한동대 창조과학동아리 두두스가 함께 보성 화평교회에서 유, 초등부를 대상으로 창조과학 캠프를 열었습니다. ITCM I 을 수료한 4명의 한동대 학생과 두두스 멤버 6명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6일동안 성경의 역사 7C를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수학 공부도 함께 병행한 캠프였습니다.

7C(창조-타락-심판-혼돈-그리스도-십자가-성취)의 주제를 따라 찬양과 율동, 강의와 연극에 이어 각 날의 주제에 맞게 6일창조 지구만들기, 죄 그리기, 노아 홍수 스토리 북 만들기, 천국 보물 찾기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화론이 아이들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기 전, 성경의 역사를 올바르게 심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기뻐하였습니다.

캠프를 진행한 한동대 학생들은 성경의 창조 역사에 대한 경험과 배움을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에 큰 감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러한 꾸준한 시도와 노력이 더욱 이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18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모집

유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겨울 방학 기간에 열립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참여 희망하는 강추 프로그램이므로 조속히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와 접수를 하십시오.

기간 : 2017년 1월 2-5일(월-목)

경유지 : LA 출발 — Mojave Desert — Grand Canyon — Bryce Canyon — Zion Canyon — LA 도착

참가 자격 : 미국에 유학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인도 : 이재만 선교사(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석사)

참가비 : \$50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문의 : Tel. 562-868-1697, hisark@gmail.com



유학생창조과학탐사

습곡, 격변적인 지각변동의 증거



구조 지질학에서 지층의 구조와 변형을 설명할 때 나누는 기준이 있다. 첫째는 취성 변형 (brittle deformation)이고, 다음은 연성변형(ductile deformation)이다. 암석은 대표적으로 단단한 물체 중 하나로서 암석에 힘을 가했을 때 약간의 변형만 되며 부서져버린다. 지층에서 이러한 취성변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단층이다. 지층이 힘을 받아 압력이나 장력을 받게 되었을 때, 변형이 많이 되기보다 끊어져버리는(dip) 것이다. 반대로, 연성변형은 잘 늘어나는 변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습곡(fold)이다.

오늘날 지표상의 많은 지층에는 변형(deformation)을 겪은 흔적이 있다. 이러한 지층의 변형은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지각변동의 영향에 의한 것인데, 지각변동의 주요 원인은 지구 내부의 맨틀의 역학적인 과정과 지각과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각과 맨틀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판은 부분적으로 압력을 받거나 용기, 또는 침강을 겪게 된다. 이러한 판들의 상호작용이 지표를 구성하는 지층들의 변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는 특히 판과 판이 수렴하는 곳에서 더욱더 뚜렷하다. 이러한 지역에는 두꺼운 지층들이 같은 곡률로 휘어져 있는(사진과 같이) 습곡이 많이 발견된다. 습곡은 지질학적으로 희귀한 지층의 구조가 아니며, 여러 곳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반적인 지층의 구조다. 전 지구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대규모의 습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층과 지층 사이에 오랜 시간적 격차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암석은 지구표면 조건에서 대부분 취성변형을 겪기 때문에 (다른 말로,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지표면에 존재하는 습곡의 형성을 진화론적 지층의 형성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난해하다. 현대 진화론적 지질학에서는 이렇게 미스터

리한 대규모의 습곡이 과거에 압력과 열을 받아서 형성되었다고 설명하지만,⁽¹⁾ 이는 사실상 습곡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퇴적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습곡들은 고압 또는 고온 변성을 받은 흔적없이 대부분 퇴적암 그대로 존재한다. 만약 강한 압력과 높은 온도로 변형을 받았다면 변성이 되어야 하며, 더불어 두꺼운 지층 전체에서 변성의 정도도 달라야 한다. 온도와 압력이 모든 지층에서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습곡 지층들은 결코 이러한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지진은 사실 취성변형의 결과이다. 한 예로, 작년 4월 대규모 지진이 있었던 히말라야 산맥에는 매우 두꺼운 습곡이 있는데, 판의 이동으로 인해 히말라야 산맥 아래 인도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 형성되어 있던 단층(thrust)이 더 미끌어지며 지진을 일으켰다.⁽²⁾ 이처럼 변성 조건에 있지 않는 한 대부분 암석의 변형 과정에서는 습곡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단층이 형성된다. 만약 오늘날의 과정대로 과거에도 지층이 형성되고 변형되었다면, 이미 쌓인 지층은 굳어져서 습곡이 아닌 단층이 아주 많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 후에 쌓인 지층은 그 단층 위에 쌓였을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는 결코 오늘날 보는 것 같은 습곡 구조를 만들 수가 없다.

더욱이, 암석은 압력보다는 장력(tension)에 매우 약해서 쉽게 부서지는데(그림과 같이) 예를 들어, 지층이 위로 휘어질 때(anticline) 상부층은 상대적으로 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습곡의 상부에서는 단층의 구조가 아주 많이 발견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습곡은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단층이 거의 없이 부드럽게 휘어져 있

는 모습을 보여준다.⁽³⁾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두꺼운 지층들이 쌓인 후 굳어질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다음 지층들이 쌓인 후 한번에 휘어졌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드러운 곡률은 지층이 완전히 굳지 않은 채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격변적 홍수로 인해 빠른 시간 안에 지층들이 퇴적되었고, 판들이 이동하며 그 두꺼운 퇴적층이 힘을 받아 한번에 휘어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홍수만 이러한 퇴적 작용, 그리고 오늘날 지표에 존재하는 습곡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 남겨진 수많은 증거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경에 말씀하신대로

행하셨던 창조와 홍수 심판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욥 38:2) 라고 물으셨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 원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무지한 이론으로 진리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진화론은 하나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성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

조희천(지구물리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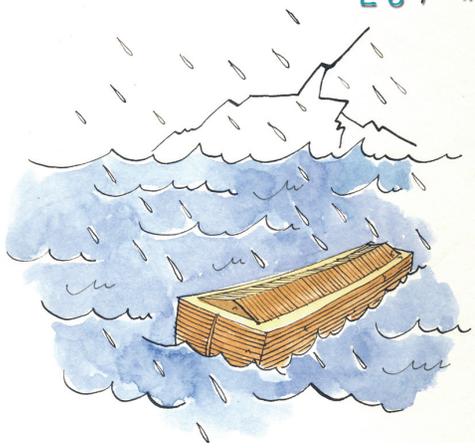
참고문헌

1. E. S. Hills, 1996, "Environment, Time and Material," Elements of Structural Geology (London: Methuen & Co., 1970), pp. 104-139;
2. G. H. Davis and S. J. Reynolds, "Dynamic Analysis," Structural Geology of Rocks and Regions,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pp. 98-149.
3. B. C. Howard, "Nepal Earthquake Strikes One of Earth's Most Quake-Prone Areas", National Geographic. Retrieved 27 April 2015
3. A. A. Snelling, 2009, "Rock Layers Folded, Not Fractured-Flood Evidence Number Six", ANSWERMAGAZINE.COM, pp. 80-83

창조과학탐사

간증 / 예수인교회EM창탐

6/20-23, 2016



Special thanks to Dr. John Kim for his dedication to making this journey a memorable experience. We are grateful for this passion and hard work in preparing the lessons he taught along the trip. More importantly learning more about creation reinforces my belief in God. -George Alabi <Everett New Life Foursquare Church>

This trip has solidified my understanding and knowledge that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was created by God and not through evolution. This trip was important to me because in school I had learned so much this year about evolution and how we evolved from monkeys, but now I remember that we were created by God. -Claire Bae <New Life Church>

I am now provided with answers on how creationism is the truth rather than evolution. And I very much enjoyed traveling to the canyons and learning that the whole fossils could have only been made quickly and catastrophically. -Daniel Pyun

Honestly this whole thing is new. I never really cared about this topic until this trip. Mostly it surprises me how this whole concept is all matching up with the Bible. -Deborah Shin <New Life Church>

I teach 6th grade Ancient Civilizations and I've always loved history and learning about how the world came to be. This tour has tremendously opened my eyes to so much more than I could have imagine. I want to go have and further educate myself in apologetics and being a good resource to all youth who had the same questions as I did. I need to go home and figure out how I'm going to change the way I teach at my secular public school to help them think more critically about what info is presented in the textbooks. -Becky Kim <Ekko Church>

I gained assurance in my faith. Although I was a Christian since I was young, and knew that evolution was not true, it always frustrated me when atheists at school challenged my beliefs, because I didn't possess any scientific knowledge or sure evidence that I could point at to prove to them my faith, and precisely why this world was created by an awesome creator named God. -Jaeh Kim <빌립교회>

I didn't expect that the evidence of creation would be so scientific and detailed. I learned a lot from your presentations. Thank you for answering my questions even though I asked a lot and for leading this tour. -Jinha Kim <예수인교회>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6/2017 ACT Schedule

8/29-9/1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노회), 이재만
9/5-8	창조과학탐사 (성남금광교회), 이재만
9/9-15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9/18-22	창조과학탐사 (성광교회), 이재만
9/26-10/1	창조과학탐사 (이랑학교), 이재만
10/6-13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10/15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10/21-23	창조과학세미나 (빙햄튼한인침례교회), 이재만
10/28-30	한동대학교 학생부흥회, 이재만
12/22-2/18	제 8 기 ITCM
1/2-5	창조과학탐사 (18차유학생창조과학탐사), 이재만
1/17-21	창조과학탐사 (군산드림교회), 이재만
2/21-27	창조과학탐사 (인천동춘교회), 이재만
4/10-15	창조과학탐사 (명성교회), 이재만
4/16-22	창조과학탐사 (높은뜻푸른교회), 이재만
4/23-27	창조과학탐사 (하늘샘교회), 이재만
5/1-7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1),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